

상생결제 외형 성장에도 낙수효과 미미… “관리 강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상생정책 평가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낮아
‘주요 원재료’ 기준도 불명확
상생결제 1차 협력사에 편중
2차 이하 실제 지급률 6.5%
성과공유제 관리 기반도 미흡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상생협력 정책인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결제, 성과공유제 곳곳에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우 낮은 인지도, 엄격한 적용요건, ‘주요 원재료’ 개념의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현장 확산이 더디다. 상생결제는 실제 운영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2·3차 이하 협력사로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미흡한 관리 기능도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펴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기업들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는 54.7%, ‘전혀 알지 못한다’는 45.3%로 절반 가까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지도 조사 결과 역시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원사업자가 39.3%, 수급사업자는 30.3%에 각각 그쳤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정의된 ‘주요 원재료’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것도 제도 운영상 한계로 꼽혔다.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원재료의 개념적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거래에서 어떤 품목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볼 것인지는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져 있다”면서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

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동약정 체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생결제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기업(누적)은 2021년 545개에서 2025년에는 839개로 증가했다. 실제 지급 기업도 같은 기간 414개에서 668개로 크게 늘었다. 거래기업(협력사)도 2021년 14만9641개사에서 2025년에는 18만5385개사로 증가해 3만5744개사가 새롭게 상생결제 생태계에 편입했다. 상생결제 지급액 역시 2021년 142조8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 증가, 5년만에 약 46조원(약 32%)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기준 전체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1000억원 중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은 185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그런데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로 지급 가능한 상생결제액 52조100만원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3조3600억원으로 전체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예정치는 상생결제가 ‘구매→1차’에 머무르고 낙수효과가 낮은 이유로 ▲대금 수취 후 재발행을 저하 ▲현금 선호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운영한지 10년이 훌쩍 지난 성과공유제에 대해선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성과지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고려아연, 美 통합제련소 정치권 힘 실린다

블랙번 상원의원, 테네시 부지 방문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 현황 점검
한미 경제안보·핵심광물 협력 논의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정치권의 지원을 대거 끌어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마사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프로젝트 크루서블 부지와 크루서블 징크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프로젝트의 비전 등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핵심광물통합제련소 구축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



마사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현장 투어 중 현장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려아연

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 아연, 구리 등 전라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정제할 수 있는 통합 제련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맞닿은 핵심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통해 미국 사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온산제련소에서 축적해 온 통합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프로젝트 크루서블

의 추진 현황 및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계획,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혁신적인 인재들과 함께하고, 이들이 테네시주에 도입하고 있는 수준 높은 기술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테네시주 가정에 새로운 기회이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로, 테네시주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책방송 통합 브랜드 ‘생생활로’ 론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등 판로지원 강화
상생 가치에 생방송 역동성 결합

공영홈쇼핑이 정책지원방송 통합 브랜드인 ‘생생활로’를 론칭한다.

정책사업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생생활로’는 공영홈쇼핑의 핵심 가치인 ‘상생’에 생방송의 역동성을 결합한 이름이다. ‘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수 상품을 발굴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생생활로’ 방송에 로고를 상시 노출하고 정책 방송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도록 연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착한 소비’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생생활로’를 통한 우수 성공 사례도 적극 알리며, 브랜드 자체의 마케팅 효과와 신

뢰도를 함께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생생활로’ 첫 방송은 16일 진행된다. 이날 ▲의성농협지주(방송시간 오후 12시 40분) ▲월야농업 단호박(〃 오후 1시 30분) ▲제주하우스감귤(〃 오후 2시 20분) ▲사랑해대구(〃 오후 3시 10분) ▲두부면(〃 오후 4시) ▲맛자반 순살 간고등어(〃 오후 4시 50분) 등 6개 상품을 차례로 소개한다.

공영홈쇼핑의 정책사업 방송은 지난해에만 358개 상품을 발굴해 337억 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2개 상품은 우수한 성과를 거둬 일반 방송으로 전환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생생활로’라는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단순한 일회성 판로 지원을 넘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효성, 창립 60년 만에 ‘문과 인재’만 채용

사학·철학·미학·어학 전공자

효성그룹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1966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재계에서도 특정 계열 전공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효성그룹은 글로벌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이번 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우대하며, 입사 이후 배치 직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채용에는 평소 인문학과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학·철학·미학 등 인문학 계열과 국어·국문·영어영문 등 어학 계열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모두의 챌린지’ 확대

중기부, 스타트업 방산 진출 지원

정부가 스타트업의 방위 산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모두의 챌린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 모두의 챌린지 사업(방산)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수요 기업이 제시한 기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기술검증(PoC)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과제별 협업 자금 최대 1억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사업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권형택 신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취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앞장”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사진)가 임명됐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정 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하는 자리로, 권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9년 7월 14일까지 3년이다.

권 이사장은 1968년생으로 대구영진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우리은행 투자금융본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인천시장 경제금융·투자 특별보좌관,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 김포골



드라인운영 대표, HUG 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금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시선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권 이사장은 “인공지능·딥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보가 앞장서야 한다”며 “기술보증을 비롯해 기술사업화, 인수합병(M&A), 기술거래, 기술보호 등 혁신성장 지원을 한층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혁신의 선도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